

아시아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 만찬사

아시아 협력대화(ACD) 회원국 외교장관과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는 일찍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문화와 수준 높은 기술문명을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 아시아인들 모두 이 같은 소중한 유산과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아시아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확대되어 21세기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의 공동번영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아시아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참여국도 크게 늘어 18개국이던 회원국이 어느새 30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는 각 지역별로 여

러 협의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일 개막되는 아시아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와 같이 전체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EU를 통해 통합의 수준을 높여 가면서 협력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아시아도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협의체가 결성되어 내실 있게 발전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거대한 대륙인 아시아는 다양한 민족·문화·종교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포용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방성에 입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서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과학기술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과 계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채택하는 '서울 IT 선언'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정보격차를 줄이고, 이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IT 선도국가로 지정해 주신 한국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IT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과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와 질병, 각종 자연재해와 같이 아시아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는 데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대화가 많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